

徑五八cm로 鍾身은 突帶文으로써 三段으로 區分되었는데 上段에는 梵字가 둘러 있고 中段에는 四孔廓과 四菩薩立像이 交互로 配置되었으며 下段에는 銘文이 있다. 그리고 口緣은 唐草紋帶가 둘러 있으며 鍾頂에는 奇巧한 龍鈕, 甬筒이 있다.

鍾銘은

開心寺中鍾「重入二百斤」化主天心「前化主」玄奇「康熙十二年癸丑三月初三日」

이라 하고 또 施主名이 있으나 判讀치 못하였다. 鍾自體에서도 改修가 窺보이지만 銘文으로 보아 二百九十餘年前인 顯宗十四年(癸丑)에 改鑄된 것으로 推定되니 前化主 玄奇의 鑄造는 相當히 오래前 일일 것이다.

光州市內發見 甕棺葬의 一例

梁 會 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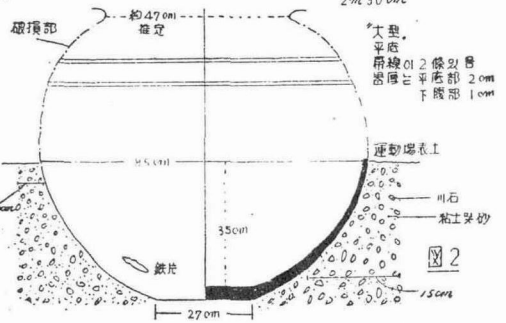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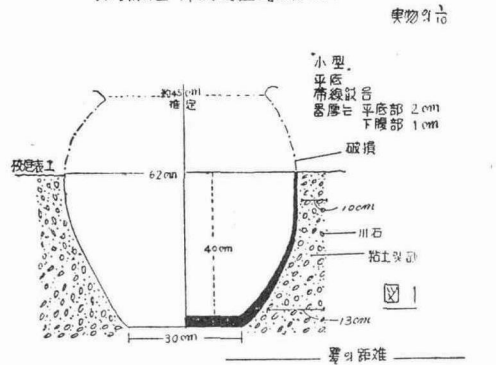
一九六三年 五月二〇日 全南 光州市內 芝山洞에 있는 사레지오女子 中高等學校 校庭에서 二個의 甕棺이라고 생각되는 大甕이 發見되었다.

이 날 同校 教師 朴某氏가 校庭 聖母像에서 校門쪽으로 約八m되는 地點에 龜裂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이 地點을 과 보았더니 一,三m의 間隔을 두고 大小 두 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었다.

이 항아리는 모두 灰色 新羅式 土器며 胎土에 長石粒이 많이 섞인 것이 注意되었다. 이 항아리들은 地中에 垂直位置로 묻혀 있었는데 그 周邊에는 川石·粘土·모래를 섞은 것으로 다져 있었으며 元來 항아리를 파 묻기 위해 판 구덩이에 항아리를 넣고 그 周邊空間을 다시 上記 混合土로써 메운 모양이다. 至今 항아리의 上半部는 運動場整地時에 이미 잘려 나갔고 完形이 남아 있지 않으나 大甕은 腹徑 〇·八五m, 小甕은 〇·六二m로서 바닥은 平底이고 多幸히 그 附近에 묻혀 있던 口緣部 破片

第四卷 第七號 通卷三十六號

사레지오女校校庭甕實測圖



사레지오女校 校庭甕實測圖

에 依하면 짧게 外反하는 式이며 항아리의 全形은 復原圖와 같은 것이었다고 推測된다.

小甕속에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으나 大甕속에서는 劍片이라고 생각되는 길이 一〇cm가량의 鐵片과 有機質物 섞은 것이 들어 있었으며 이것이 甕棺이었다는 推測을 可能케 하고 있다.

光山郡, 靈岩郡, 羅州郡等 榮山江下流域에서는 三國時代初期以來로 甕棺葬이 盛行했으며 특히 三國時代에 發展하였는데 여기 보는 항아리도 그런 것과 連結되는 甕棺의 一例라고 생각된다. 그 確實한 時期는 알 수 없으나 土器形態로 보아 新羅統一期頃에 屬하는 것 같은데 大甕의 腹部에 二條의 凸帶가 둘러 있는 것은 金海甕棺의 그것과 比較해 무슨 連絡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何如는 湖南地方 특히 榮山江下流의 甕棺葬의 새로운 例로서 여기에 紹介해 두는 바이다.